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 크는 모습에 보람”

안산 대부도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 모아 사는 ‘동지청소년의 집(원장 자월)’이 있다. 이 동지에는 9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뛰어놀며 함께 살고 있다.

9월 25일, 이곳에 아이들의 ‘친구’가 되길 자처한 사람들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마다 ‘동지’로 찾아온지 벌써 4년이 넘는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봉사팀(회장 장영철, 이하 불여사)’이 그들이다.

“기저귀 차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새 걸어 다니고, 자기 밀에 동생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지요.”

법명 때문에 ‘달마 거사’로 통하는 장영철(34세)은 2년째 불여사 봉사팀 회장 역할을 맡아 수시로 ‘동지’에 다닌다. 자주 동지에 들르는 것은 회장이라는 직함 보다는 아이들을 보고픈 마음 때문이라 한다.

이제 다른 회원들도 4년 동안 아이들을 돌봐 와서 그런지 아이들 각각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안다. 그리고 꽤 친숙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잔소

리도 할 줄 안다.

“애들이요? 처음엔 옆에 오기는커녕 눈도 안 마주쳤어요. 또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겠지” 생각한 모양 이더라고요.”

금방 친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갖고 꾸준히 찾아오는 불여사 회원들에게 아이들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뛰어놀면서 품에 안기는 아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조용히 상담을 요청하는 아이. ‘동지’에는 각기 다른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에 불여사 회원들은 먼 길을 마다않게 왔다.

불여사는 처음에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성지 순례를 주로 하던 인터넷 카페 모임이었다. 그러다 ‘좋은 일’에도 눈을 뜨고 싶어 도움을 손길이 필요했던 ‘동지’ 자월 스님의 손을 잡게 된 것이다.

“동지’ 일이라면 짬뽕도 아까워 않는 불여사 회원들은 말한다.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사/글·사진=김강진 기자



“햇볕에 이불 좀 말려야겠네” 불여사 봉사팀이 9월25일 ‘동지청소년의 집’에서 이불 정리에 한창이다.

겨울나기 유리창 보수 도와주세요

동지청소년의 집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 옷도 필요하고 식료품도 달린다. 그러나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지’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

한 문제다.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 봉사팀은 “겨울에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불자들에게 유리창 시설비 후원을 부탁했다. (032)883-9033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당신의 용기가 희망입니다”

생명나눔 등록 절차와 준비 이렇게

“당신의 용기가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입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 홈페이지(www.lisa.or.kr)에 접속하면 이러한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이. ‘동지’에는 각기 다른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에 불여사 회원들은 먼 길을 마다않게 왔다.

또한, ‘생명나눔’의 본질도 잘 알아야 한다. 생체기증이나 사후기증 모두 비밀로 이뤄진다. 즉, 기증자와 대상자가 서로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생명나눔’은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실천해야 한다.

▲신장기증=만 18세부터 60세까지 등록 가능하다.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한 후 거부 반응이 없을 때 이식 수술을 시



최근 생명나눔 열풍이 불면서 ‘생명나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제주 캠페인에서 골수기증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진제공=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나눔 등록단체 연락처

단체 이름	생명나눔 종류	연락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사후 신장기증, 골수기증	(02)734-8050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기증, 사후 신장기증	(02)363-2114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골수기증	(02)737-5533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	(02)363-2114
대한적십자회 혈액사업본부	헌혈, 골수기증	(02)3705-8000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보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 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

순수한 나눔정신 가장 중요

기증자와 대상자 비공개

골수 기증등록 40세까지

행한다. 신장 기증은 생체 기증이 가능하다. 단, 고혈압·당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 기증을 할 수 없다.

▲골수기증=등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40세. 기증은 60세까지도 가능하다. 우선 3cc 채혈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채취한다. 혈액을 분석한 결과는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다.

골수이식 시에는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심한 편이 아니다. 또한 기증자에게서 채취하는 골수는 전체의 약 5%정도이므로 2~3주 후면 다시 생성된다.

▲사후 신장기증=신장기증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 사람에게 한해 사후 자동적으로 각각이나 뼈, 조직 등이 기증된다. 이 경우 장례비용도 후원된다.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뇌사자 장기기증=반드시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뇌사 또는 사망후 장기기증은 그가 죽이나 유족 중 1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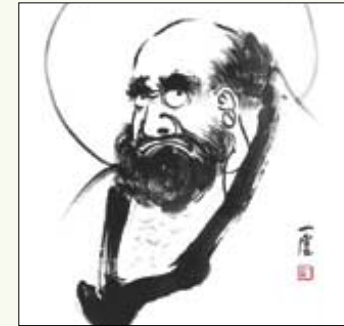
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



민수동기(예금주:김강진(현대불교))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동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동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epy.buddhania.com/homepy/help

폐쇄위기 사명당의 집 19일 후원의 밤 열린다

폐쇄위기에 처한 불교계 단체 유일의 노숙인 시설 사명당의집을 살리기 위한 후원 행사가 열린다.

작은손길(대표 김광하)은 10월 19일 저녁 6시 30분 역사문화기념관 문화공연장에서 사명당의집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거리에도 희망을’을 개최한다.

(02)924-1010 후원:조흥은행 397-01-09836(예금주 작은손길)

유철주 기자

1980년 10월 발생한 ‘10.27법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받습니다

본 종단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세력의 정권찬탈 야욕으로 자행된 ‘10.27법난’의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8일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출범 하였습니다.

작년 8월 노무현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진상규명이 국정현안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가 올해 5월 구성되었습니다.

불교계는 ‘10.27법난’ 발생 이후 정부에 대해 꾸준히 법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가 반영되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제로 ‘10.27법난’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추진위는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밝혀진 자료를 수집, 분류하고 있으며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 위에도 법난의 실제적 진상규명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촉구하였고 본 위원회 또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 할 것입니다.

본 ‘추진위’는 법난의 진상규명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증인 등의 조사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980년 10월 27일 및 같은 달 30일 발생한 군경합동 전국사찰일제수색 등으로 일련의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찰대표님들께서는 꼭 동참하시어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만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제규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10.27법난’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은 물론 특별법제정까지 나아가려 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49년 9월

신고 내용

1. 피해제보 : 10.27 법난당시 피해를 당하시거나 알고 계신 분
2. 상황제보 : 10.27 법난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 분
3. 자료제보 : 10.27 법난당시나 그 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
4. 기 타 : 10.27 법난에 관한 모든 것
5. 신고 처 :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사무국
전화: 02)734~6403 / 전송: 02)734~6402
E-mail: bud1027@paran.com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전화: 02)2011~1822 / 전송: 02)735~0614

※ 신고양식은 조계종총무원 홈페이지에 링크된 추진위 블로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각 구구본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법타 합장